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3. 7.(화) 배포즉시	배포 일시	2023. 3. 7.(화)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 이승헌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 권태성 (044-203-5657)
	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	책임자	과 장 이규봉 (044-203-4270)
		담당자	서기관 차세운 (044-203-4271)

통상교섭본부장, 반도체 통상 현안 등 협의를 위해 방미

- 3. 8.~10일 미(美) 행정부, 의회, 싱크탱크 등 면담 예정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**美 동부시간 3.8.(수)부터 3.10.(금)**까지 **미국 워싱턴 D.C.를 방문**하여 **상무부, 백악관** 등 **美정부 고위급 인사**와 **美의회**,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날 예정이며(상세 일정 변동 가능),

○ 미측이 최근 발표(2.28일)한 「**반도체 및 과학법***」의 **재정지원 세부 지침**(Notice Of Funding Opertunity, 이하 NOFO), 가드레일** 규정 등 **반도체 관련 對美 통상현안**을 논의할 계획이다.

* CHIPS and Science Act (`22.8월 제정·발효) :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불(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불 포함), 투자세액공제 25% 등을 규정

** 반도체지원법상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의 생산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하는 협약을 美상무부와 체결

□ 우선, 정부는 현재 포함된 **보조금 지급 조건**들이 ▲**불확실성** 증가, ▲**기업의 본질적인 경영·기술권 침해 우려**, ▲**對美 투자 매력도 저하**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,

○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·고도화를 위해서는 **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**임을 강조하는 등,

○ 향후 **개별 기업이 美 상무부와 협약**을 통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**협상 여지**를 **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**할 계획이다.

□ **가드레일, 반도체 수출통제** 등에 대해서도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설명할 계획인 바, **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** 등의 측면에서 **우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**이 필요함을 요청할 계획이다.

□ 금번 통상교섭본부장의 訪美는 **그간 정부가 對美 반도체 통상 현안을 지속 논의해 온 과정의 일환**으로 볼 수 있는 바,

○ 정부는 **작년 8월 美 반도체지원법 발효 직후**에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**美 상무장관**에게 보내고, 다음달인 **9월에는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**한 바 있으며, 최근에는 **첨단산업국장(1.19~21), 산업부 1차관**(2.15~17)**도 미국을 방문하여 논의**한 바 있다.

○ 아울러, 작년 5월 바이든 대통령 訪韓시 양국 상무장관이 합의하여 설치한 **한미산업공급망산업대화(SCCD)의 반도체 워킹그룹**도 가동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협의해 왔다.

*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: 양국간 산업·공급망 협의체

□ 정부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으며, 안 본부장은 3.7(화) 오후에 **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관계자**를 만나 출장 전 **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향후 대응 방안**을 **논의할 계획**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